

유해환경

Harmful Environments

도현심(Hyun-Sim Doh)¹⁾

이사라(Sarah Lee)²⁾

송승민(Seung-Min Song)³⁾

ABSTRACT

This study reviews facts and trends of harmful environments in the last decade that negatively affected children's development. Younger children have been exposed to harmful media, drugs, facilities, and objects. A matter of chemical substances contaminating in-door air has become quite controversial, recently.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armful environments against children, there are great needs for a survey covering all ages based on the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harmful environments, research identifying its causal effects on chil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both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and a longitudinal study processing its effects in a life-span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hat by providing parent education and a plenty of cultural facilities as social efforts to create sound family culture, psycho-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of children are improved. Furthermore, legal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harmful environments are needed to be strengthened.

Key Words : 유해환경(harmful environments), 유해매체(harmful media), 유해약물 (harmful drug), 유해물질(harmful substance).

I. 현 황

아동이 속한 여러 환경적 체계의 역할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유해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여러 체계 가운데 아동이 직접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²⁾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전임강사

³⁾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인 가정, 학교, 또래 등 미시체계(microsystem)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유해환경을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환경으로 정의하고(김영한·이명진·이승현, 2005; 임원선, 2008), 이를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물건, 유해행위 및 유해물질 등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비롯하여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해매체

유해매체는 청소년보호법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임원선, 2008). 이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해매체로는 PC통신과 인터넷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유해환경에 대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 가운데 44.1%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14.1%로 가장 높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2년도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6학년의 게임 이용률 증가는 유해매체의 최초 접근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음란사이트 이용 경험은 1999년의 27.3%에서 2002년 52.4%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41.3%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한 변화는 1999년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상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사이트 수가 증가하였거나 신분확인 없이 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거나 음란사이트 이외에 청소년의 관심을 끄는 사이트들이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

게임아이템 구입경험과 관련하여,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7.9%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79.0%가 그 비용을 용돈으로 충당하였다.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위해 금전을 소비하는 행태는 유해매체가 유해한 온라인 게임과 더불어 아동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더욱 심각한 유해환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을 돈을 주고 거래해 본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62.9%와 31.3%로 조사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게임 때문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가 적어진 경우도 남학생은 43.5%, 여학생은 18.5%, 게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남학생은 31.4%, 여학생은 19.3%로 나타나(보건복지가족부, 2008), 게임이라는 유해환경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해매체를 이용했던 장소는 집이나 친구 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하루 컴퓨터 사용시간은 2002년에는 평균 2.5시간에서 2008년에 평균 1.3시간으로 줄었으나 2002년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휴대폰 사용(문자, 음악, 게임, 동영상 등) 시간이 평균 2.1시간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는 아동이 이용하는 유해매체 가운데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유해매체와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유해매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해매체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감정억제의 어려움을 비롯

하여 집중력의 저하와 성적 충동, 모방행동 및 성폭력에 대한 충동 증가 등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이기숙·김수연, 1999). 특히, 성인영화, PC포르노, 성인만화 등을 통한 음란정보로 인해 성적이고 폭력적인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아 성 개념에 대한 혼란 및 직접적인 성충동으로 인한 성폭행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폭력적인 게임 중독으로 살인충동과 폭력충동이 증가하고, 음란물 중독으로 성폭력과 성범죄의 충동 및 성의식의 왜곡이 일어나며 음란채팅 중독은 컴섹스와 자위행위의 증가, 원조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2001).

2. 유해약물

청소년보호법 제 2조에서는 유해약물을 주류, 담배, 마약류 및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김영한 외, 2005). 음주, 흡연, 약물은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서 사용하다보면 중단하기 어렵고 중독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독성을 유발하여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김영한 외, 2005).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 가운데 현 우리나라 아동에게 대표적인 유해약물로는 음주와 흡연이 손꼽힌다.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 있는 생애 음주 경험율은 1999년 60.2%에서 2002년과 2004년 각각 70.5%와 74.4%로 증가하였다(김영한 외, 2005). 그러나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음주 경험율이 63.3%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음주횟수가 1-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이고 최근 한 달간 음주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65.4%로 나타나(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의 음주경향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경향을 보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음주 경험율은 각각 64.9%와 65.4%로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최초로 술을 경험한 시기는 2002년과 2008년 모두 중학교 1, 2학년 시기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 곳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구매하려 할 때 나이를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원인은 가정 내외 모임에서 접하기 쉬운 우리의 음주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 청소년의 33.1%는 ‘명절이나 제사 등과 같은 집안 행사’에서 처음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친구들과의 모임’(15.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일반 청소년의 과반수는 집안 행사나 모임 등 부모를 통해 처음 음주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의 태도가 허용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음주 태도 및 행동은 자녀의 음주 행동과 관련이 있어, ‘음주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음주자 비율은 높은 반면 폭음자 비율은 낮았으며, 부모의 음주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역시 음주율이 높았다(조정애, 천성수, 2008). 구체적으로, 1회 음주량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잔 이상과 4잔 이상인 경우를 폭음자로 정의할 때, 부모의 음주빈도가 1주일에 2-3회인 경우 비음

주자보다 폭음자 비율이 높았으며, 비음주자의 40.4%, 비폭음자의 26.2%, 폭음자의 21.5%가 집안에 알코올을 보관하거나 진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비음주자일수록 가정내 환경적으로 알코올을 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청소년 흡연에 대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9.1%로서 10여년 전인 1999년의 35.4%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세는 특히 2005년 이후 두드러진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이렇게 생애 흡연 경험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최초로 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999년 9.3%에서 2008년 40%로 증가 추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이는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흡연 경험자들이 흡연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전국 78,00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흡연율은 17.4%, 여학생은 8.8%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2008)에 의하면 매일 피운다는 응답자는 남학생의 8%, 여학생의 2.3%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흡연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담배를 구입하는 곳으로 동네수퍼(49.4%)와 편의점(3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음주와 마찬가지로 흡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이 흡연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흡연경험의 원인을 또래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흡연경험 및 흡연빈도 증가에 관한 연구결과(박선희, 2007)에 의하면, 흡연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

은 흡연을 경험한 친구 숫자의 증가,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의 증가,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 수준의 증가였고, 흡연자들의 흡연빈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학년의 증가, 높은 용돈 수준, 흡연을 하는 친구 숫자의 증가, 경험한 비행행위 숫자의 증가, 최고 학력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 높은 공격성 등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을 경험한 친구 숫자의 증가는 흡연경험 및 흡연자들의 흡연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유해약물에 해당하는 흡입제(본드, 가스, 신나 등)나 잠이 안 오게 하는 각성제, 환각을 위해 복용하는 다량의 진통제 등은 일반 청소년들 가운데 각각 2.4%, 2.2%, 1.9%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보건복지가족부, 2008),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해약물복용보다는 음주나 흡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뇌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생후 2년까지 뇌가 완성된다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뇌의 발달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The Science Times, 2008. 4. 18). 특히 언어, 감동, 운동, 공간지각을 담당하는 백질밀도는 사춘기까지 증가하는데, 마약복용을 비롯해서 흡연, 음주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또한 아동기 음주경험은 뇌의 신경발달을 바꿔서 이후 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NIAAA, 2005). 아동기의 유해약물 복용은 뇌손상을 통해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이후 알코올 의존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의 유해약물 경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3. 유해업소

아동이 유해한 물리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는 것은 비행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 비행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김준호, 1996; 이기숙·김수연, 1999; 이호진·이명선, 2001; 정하성, 2006). 유해환경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면 아동은 유해환경에 대해 친근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구분한다. 전자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 담배소매점,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소,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음반판매업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등이 포함된다(김영한 외, 2005).

일반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률은 노래방이 93.7%로 가장 높고, PC방(91.8%), 전자오락실(71.1%), 만화방(53.8%), 카페(39.8%), 비디오방/DVD방(21.3%), 호프집/소주방(19.5%)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동일 기관의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률은 전자오락실 85.0%, 노래방 80.0%, PC방 79.8%, 만화방 59%, 커피숍 34.1%, 호프집/소주방 23.5%, 비디오방/DVD방 21.4%, 카페 17.5%이었다. 두 시점에서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지난 10여년간 오락실의 이용률은 줄어든 반면 PC방과 노래방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커피숍의 항목은 없어졌으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카페의 이용률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의 조사에는 락카페, 콜라텍, 그리고 디스코텍의 이용률이 각각 7.0%, 16.0%, 7.0%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디스코텍을 포함한 나이트클럽의 이용률이 3.5%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일년 동안 유해업소 이용 횟수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노래방과 PC방은 한 달에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0.1%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오락실은 36.9%가 이에 해당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유해업소를 처음 이용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초등학교 재학 연령에 처음 노래방을 경험한 경우가 46.0%였지만 2009년에는 70.9%로 증가하였으며, 만화방도 24.5%에서 6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오락실은 그에 비해 72.5%에서 77.5%로 소폭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업소는 PC방으로 1999년에는 5.2%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재학 중에 PC방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80.5%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서 PC방 출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해업소의 이용 뿐 아니라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에 관해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청소년 출입관련 위반 사범은 감소추세이지만 고용관련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영한 외, 2005). 유해업소 고용경험은 일반 청소년 중 2.5%와 위기 청소년 중 23.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의 취업경로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응답은 '선배나 친구로부터의 소개'이었으며,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가운데 각각 12.6%와 35.5%가 이에 해당되었다.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20%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다가 취업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 자료를 통해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위기 청소년은 심각성 수준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37.1%는 다

양한 유해업소들 중에서도 호프집, 소주방이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이트클럽(34.2%), 비디오방(12.1%)의 순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유해업소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여전히 학교주변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유해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시·도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시설로 이전·폐쇄 대상 업소 중 영업 중인 시설은 서울 지역에 가장 많았으며(44.9%), 부산(14.9%), 인천(11%), 경기(8.0%)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명선, 2000). 도시지역일수록 유해업소가 많으며, 청소년 범죄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정하성, 2006). 초등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2.5%), 그 다음으로는 만화방(47.9%), 전자오락실(37.4%), 노래방(35.6%), 호프집/소주방(32.4%)의 순이었다(이명선, 2000). 서울시는 현재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은 물론이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 사행성게임기의 학교주변 설치를 규제하는 싱글로케이션 설치제한 등 다양한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인터넷한국일보, 2009. 5. 22).

중·고등학생의 유해환경 접촉과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이기숙, 김수연, 1999)에 의하면, 숙박업소, 카페, 사창가, 소주방, 락카페 및 비디오방은 절도와 등록금 전용 등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대물비행과, 당구장, 카페, 사창가, 소주방, 락카페 및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지위를 벗어나 성인지향적 행위를 하는 지위비행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또한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대물비행과 지위비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았다. 전국 17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유해시설의 현황과 청소년범죄 발생률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정하성, 2006)에서, 단란·유흥주점,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비디오방 등 4개의 변수 중에서 단란·유흥주점과 비디오방은 청소년범죄 발생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들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단란·유흥주점과 비디오방이 많을수록 청소년범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유해물건

유해물건이란 음란한 행위를 초래하는 성기구 등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자위행위 및 성기자극을 위한 성기구류가 이에 속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동의 심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유해물건으로 규정한다. 지시기로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는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유해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1999-23호), 환각,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는 칼라프선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2005-07호).

이러한 유해물건은 아동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유해물건은 판매형태가 고정업소를 벗어나 인터넷으로 확산되면서 on-line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김영한 외, 2005), 이에 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05)에서 실시한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개의 사이트 중에서 65.0%의 사이트만 정상적인 성인인증 절차가 있었고, 나머지 사이트는 이러한 인증 절차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

용이 가능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용품 구매가 가능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해물건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용품,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사용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6%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상품들의 구입처는 동네문구점이 68.8%로 가장 높았다. 사용 도중 위해를 입은 상품 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레이저 포인터로 인한 상해도 7.6%에 달해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5. 유해행위

유해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노출, 성적 접대, 접객행위 등을 시키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장애·기형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임원선, 2008). 아동이 성매매를 제안 받는 경로로는 대부분 '채팅'(80.5%)을 통해서였으며, 이 밖에 '거리,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부킹' 6.9%, '친구나 선후배 소개' 2.1% 등도 포함되었다.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주로 '사고 싶은 돈이 필요해서'(57.3%)였고, 그 다음으로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29.5%)가 주요한 동기에 속하였다. 따라서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나 성 개방 의식 등은 직접적인 동기로 보이지 않았다. 성관계시 돈

이나 물건 등의 대가가 있었다는 의견은 7.7%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가운데 각각 7.3%와 9.0%가 이에 해당되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 유해행위에 노출된 빈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사고 싶은 물건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보건대 성인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의 성의식에도 확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청소년 유해행동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해행동의 범위를 폭력, 가출, 성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의하면, 폭력은 심한 욕설/협박, 폭행, 돈이나 물건을 빼긴 경험, 집단따돌림(왕따), 가출은 가출기간, 이유, 가출 장소, 가출 후 경험해본 비행행동, 그리고 성은 성관계 경험, 성적인 접촉의 최초시기, 성 관계의 대가(물건, 금전 등), 성폭력, 동성애, 성매매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중 욕설/협박이 가장 높았고(12.8%), 그 다음으로는 돈/물건 갈취(9.7%), 폭행(7.1%), 왕따(3.4%)의 순이었다. 이를 2007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욕설/협박(-1.4%)과 폭행(-0.5%)은 감소한 반면 돈/물건 갈취(0.9%)와 왕따(0.3%)는 증가하였다. 가출의 경우, 일반 청소년 가운데 1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해 0.7%가, 2005년도에 비해 2.9%가 증가한 수치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인 접촉을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4-6학년(19.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16.2%), 중학교 2학년(15.0%) 등의 순이었다. 2005년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4-6학년 연령층에서는 2005년의 11.8%에 비해 2008년의 19.2%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성적인 접촉

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성관계 경험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 1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학교 2학년(15.3%), 고등학교 3학년(13.7%) 순이었다. 이를 2005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초등학교 4-6학년은 8.3%에서 10.3%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3.3%에서 4.5%로 증가하여 최초의 성관계 경험시기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 관련된 유행행위가 더 이상 청소년기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 문제로 하향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유해물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유해물질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경성 질환간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매연을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 새로운 건축물이나 새로운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그리고 장난감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히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한 보호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장난감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내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중금속 등의 다양한 화학 물질이 포함된다(Li, 2007). 2004년 환경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4)에 의하면, 4세 미만 영유아의 100명당 천식 유행율은 26.6명이고, 아토피 유행율은 19명으로 2003년에 비해서 각각 16.7%와

6.7%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4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이 천식은 31.5%, 아토피 피부염은 41.2%로 환경질환이 4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성인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취약한 이유는 미성숙한 신체와 약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고, 체중에 비해서 공기의 섭취가 많으며, 자가보호가 약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고연정 외, 2009).

2008년 전국 8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오염물질을 평가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벤젠은 일부에서 높게 조사되었다(임영욱 외, 2008).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27.2%의 교실이 학교보건법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욱 외, 2008). 조사대상 학교의 위치를 살펴 보면, 대도시 및 공단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보다 미세먼지가 더 많았으며, 최근 2년간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유무에 따른 오염물질 조사에서는 2006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한 초등학교에서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천식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 내 유해환경을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질환 발생률이 높았던 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질병 상위학교에서 실내오염원이 더욱 많았다(김호현 외, 2008). 이 외에도, 서울지역 유아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한 결과, 교실에서 발암물질에 속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위해도가 발견되었으며(고연정 외, 2009),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8,31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상태 점검에서는 민감·취약 계층에서 이용하는 병원(14개)과 보육시설(11개)이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08). 영유

아기에는 발암물질 뿐 아니라 비발암물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령별 노출 비발암물질의 위해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0.5-1세로 짧은 노출기간이라도 내분비, 면역, 신경계통의 시스템이 발달하는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가 생활하는 교실을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연정 외, 2009). 이러한 유해물질은 면역 기능을 저하하는 등 신체적인 이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서 불안, 공격성 증가,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진아, 2000).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내 공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외에 장난감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도 아동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린이 완구 등 170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위해성 조사한 결과, 8.8%인 15개 제품에서 아동의 발달기능이나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이 일일허용 수준을 초과하였다(조선닷컴, 2009. 7. 29). 특히 장난감을 입에 넣고 빨 수 있는 연령에서는 장난감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II. 연구쟁점

앞서 살펴본 유해환경의 현황에서와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지극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2000년대에 들어 수행되기 시작

하였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경험적 연구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 자료는 현 우리 사회 유해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어, 관련 연구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기초로, 여기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시도할 만한 몇 가지 연구쟁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환경의 구체적 범주를 포함한 정의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국내 자료들을 고찰해 본 결과, 유해환경은 주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물건 및 유해행위에 초점을 두어 개념화되고 있다. 반면에, 국외의 경우 천식이나 아토피 등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과 같이 아동의 건강을 저해하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사회심리적, 글로벌 환경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Tamburlini, Ehrenstei, & Bertollini, 2002).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여러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환경의 범주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적 측면과 심리사회적 환경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영아기를 비롯하여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한 유해환경의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보고서들을 고찰해 보건대, 대부분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으로써 다른 발달단계에 관한 자료가 매우 드문 편이었다. 그러나 유해매체,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와 같은 유해환경의 이용 연령층이 하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과 같은 유해환경은 전 발달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러 아동발달단계에

속한 아동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철저히 요구된다.

셋째, 유해환경이 영유아기를 비롯하여 학령기 및 청소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에 속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유해환경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해매체나 유해업소와 같은 유해환경을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아주 드물게나마 보고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살충제나 독성 화학약품과 같은 유해물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Goldman & Koduru, 2000)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유해물질을 포함한 여러 유해환경이 성장기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근거할 때, 아동의 유해환경 역시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아동이 자기 집이나 친구 집에서 주로 유해매체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보건복지가족부, 2008) 부모의 음주율과 자녀의 음주율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조정애·천성수, 2008)를 통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을 포함한 다양한 양육행동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또래관계 및 교사-학생관계를 포함한 학교환경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례로 흡연경험에 대한 또래의 부정적 영향을 밝힌 연구결과(박선희, 2007)는

아동의 유해환경 이용과 관련된 또래역할을 강조한다. 나아가, 유해매체와 유해약물을 포함한 유해환경에서의 성차를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에서의 성차와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유해환경의 현황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종단적 모델을 이용한 보다 전국적 규모의 접근이 시급하다. 다양한 지역 및 사회경제적 수준의 연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연령별 유해환경 이용률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발달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유해환경과 아동발달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종단 연구를 통해 17-20세의 청소년기의 과음이 30-31세 성인기의 과음으로 연결된다는 국외 연구결과(McCarty, Ebel, Garrison, DiGiuseppe, Christakis, & Rivara, 2004)는 청소년기의 음주 문제를 예방하고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성인기의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유해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겠으나, 그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실제적, 정책적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계몽 및 홍보를 통해 건전한 가정문화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과 같은 유해환경의 이용 문제는 가

장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히 이러한 유해환경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건전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모델링은 아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해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유해매체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러한 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 처한 부모는 물론 이러한 부모들을 돕는 전문가를 훈련하는 정부기관, 즉 부모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 기관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 부모로 하여금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녀양육 신념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이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여러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부모교육 및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긴 하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장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라나는 아동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내외 심리적·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기 쉬운 성장기 아동들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근거하여서는, 영유아보육/교육시설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교과영역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 있어 전문적 자질 및 능력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환경 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필요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주의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는 건전한 아동문화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현 우리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우리의 아동은 전인적 발달을 경험하는 대신 자칫 인지적 측면에만 치우치기 쉬운 열악한 발달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성장기는 물론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예측케 하는 것으로, 아동이 다양한 환경과 대인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유해환경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과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주 및 흡연과 같은 유해약물의 경우 최근 들어 그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의 PC방 출입이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등 유해업소의 이용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은 취업으로까지 이어져 청소년 비행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국가적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여 학교보건법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신축, 개축, 증축한 학교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 1회 측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나(임영옥 외, 2008), 이는 그 시행에 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커다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연정 · 김신도 · 박숙영 · 장성기(2009). 유아교육시설 내 실내공기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어린이 건강위해성평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5(2), 78-85.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20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Ⅲ.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3, 133-162.
- 김호현 · 임영옥 · 김창수 · 김진용 · 이청수 · 양지연 · 박중원 · 신동천(2008). 천식 발생률에 따른 초등학교 내 유해 환경 평가. *한국실내환경학회지*, 5(1), 59-73.
-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2005). 천식 및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관한 전국적 실태 1차 조사보고 보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박선희(2007). 청소년들의 흡연경험 및 흡연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3), 318-328.
-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유해환경집중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이기숙 · 김수연(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 인지 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6(1), 49-71.
- 이명선(20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진아(2000). 아동의 건강과 환경 문제-아동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130-141.
- 이원재(2000). 문제음주 습관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이호진 · 이명선(2001). 청소년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이용과 건강위험행태 분석. *보건 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18(2), 129-140.
- 이혜경(2001).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방송통신정책*, 13(5), 20-37.
- 인터넷한국일보(2009. 5. 22). 어린이 식품, 불안한 '그린 푸드존'. 한국일보 웹사이트 [http : //news.hankooki.com](http://news.hankooki.com)에서 2009년 7월 27일 인출.
- 임영옥 · 이청수 · 김호현 · 양지연 · 이진우 · 손종렬 · 박중원 · 신동천(2008). 전국 초등학교 교실 내 유해 환경 평가. *한국실내환경학회지*, 5(1), 37-49.
- 임원선(2008). 청소년 유해환경과 또래의 집단 내 압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27-241.
- 조선닷컴(2009. 7. 29). 뽕뽕이 등 유아용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조선닷컴 웹사이트 [http : //www.chosun.com](http://www.chosun.com)에서 2009년 8월 31일 인출.
- 정하성(2006). 지역사회유해환경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2), 269-284.
- 조정에 · 천성수(2008). 우리나라 중학생의 음주실태 및 음주수준별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 *한국알코올과학회지*, 9(2), 41-55.
- 질병관리본부(2007). 제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청소년 유해물건의 유통 및 청소년 이용실태 조사. 소비자안전 센터.
- 환경부(2008).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 웹사이트 [http : //www.me.go.kr](http://www.me.go.kr) 에서 2009년 8월 31일 인출.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 L. R., & Koduru, S. (2000). Chemicals in

-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Toxicity to children : A public health and policy perspective. *Environ Health Perspect*, 108(3), 443-338.
- Li, Y. (2007). Indoor Air and infection. *Indoor Air*, 17(5), 335-336.
- McCarty, M. C., Ebel, B. E., Garrison, M. M., DiGiuseppe, D. L., Christakis, D. A., & Rivara, F. P. (2004). Continuity of Binge and Harmful Drinking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Pediatrics*, 114(3), 713-719.
- NIAAA (2004/2005). The Effects of Alcohol on Physiological Processes and Biological Development. *Alcohol Research & Health*, 28(3), 125-131.
- Tamburlini, G., Ehrenstei, O. V., & Bertollini, R. (2002). Children's health and environment : A review of evidence. *A joint report from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th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9, 1-227.
- The Science Times (2008. 4. 18). 청소년기 마약, 알코올... '뇌'에 치명적. The Science Times 웹사이트 [http : //www.sciencetimes.co.kr](http://www.sciencetimes.co.kr)에서 2009년 8월 24일 인출.

2009년 8월 15일 투고, 2009년 11월 3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